

독서여록(讀書餘錄)

—문법상(文法上)의 시형(時形)에 대하여

우리가 문법상의 동사의 「시상(時想)」을 말할 때는 거의 누구나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것을 본질적으로 시간의 관념과 결합하여 생각한다. 그러나 문법상의 시상과 시간이 서로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개의 문법서를 펴고, 현재시상은 「현재 행해지는 동작을 말함이라」든지 과거시형은 「이미 지나간 의의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의 밑에 거시된 문례를 검토하여 볼 때 누구나 곧 알 수가 있다. 이제 마침 수중에 있는 박승빈씨의 《조선어학》을 펼쳐 보니, 그 속에도 현재시상은 ① 일반시 정리 ② 상습적 사실 ③ 현재의 상태(기존한 상태) ④ 현재 진행하는 동작 ⑤ 미래의 대응 ⑥ 과거의 대응, 이렇게 여섯 가지로 언어의 내용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하여 왔다. 이는 보통 영문법에서 볼 수 있는 현재시상의 설명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이에서 일목요연한 바와 같이 현재시상은 벌써 현재 있는 일만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일도, 장차 있을 일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있어서 동사의 시상에 대한 이런 모순된 지리멸렬한 설명을 일축하고 시상의 진정한 의의를 포착하려는 노력이 동서에서 때를 거의 같이 하

여, 그러면서도 서로 독립하여, 일본의 세강일기(細江逸記) 박사와 화란의 라안이란 학자, 두 사람에게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래의 문법적 견해를 근거로부터 진감시킬 만큼 독자적인 견해에 도달하였다. 나는 그들의 견해를 빌어 조선어를 고찰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얻음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상세한 고찰은 조선어학의 전문 학도가 아닌 나의 할 바 못 되므로, 다만 세강 박사의 설을 간단히 소개하여 대방(大方)의 참고에 공하려 한다.

세강 박사는 현재시상을 우리가 「이렇다」든지 「이렇지 않다」든지 느끼는 사항을 그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상의 소위 「직접표상」의 도구라고 설명하고 이 현재시상을 「직관직서」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묘출·표현하는 사항이 시간의 어떠한 구분 내에 존재하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를 전기 박승빈씨 저(著) 《조선어학》의 예문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 견해가 그 예문들에 완성(完成)히 부합되는 것을 본다. 독자의 참고로 그 예문들을 이곳에 전사(轉寫)하여 둔다.

- ① 일반적 정리 : 소는 동물이오.
- ② 상습적 사실 : 범은 산에 있소.
- ③ 현재의 상태(기존한 상태) : 오늘이 중복날이오.
- ④ 현재 진행하는 동작 : 날이 어둡는다.
- ⑤ 미래의 대용 : 내일에는 김씨가 숙직이오.
- ⑥ 과거의 대용 : 성명은 박홍보이오.

과거시형은 「회상서술」이라고 명령한다. 그리하여 이 회상이라는 말은 다만 「왕시(往時)를 회상한다」는 의미로만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사

항에 대해서나, 또 시간의 구별을 떠난 판단 사항에 대해서나 그것을 우리 머리 속에 상(想)으로서 굴린다는 의미까지도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이 견해도 또한 박승빈씨가 과거시상을 설명할 때에 사용한,

수일 전에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어느 학교가 우승하였나?

그날 일기가 매우 더웠다.

등의 예에 적용시켜 하등의 불합리를 느끼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박승빈씨에 의하여 고찰되지 않은, 우리가 무슨 불의의 사건에 경악하여 발하는 「아이고 죽었다」 같은 이런 예까지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있다. 「아이고 죽었다」의 「죽었다」는 형은 과거나, 그 뜻은 이미 과거의 일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현재 혹은 미래에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시상과 시간과를 혼동하는 문법적 견해로는 과거시상에도, 현재시상에도, 미래시상에도 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시상을 「회상서술」이라 하는 세강 박사의 견해로 하면 완전히 모순 없이 설명된다.

다음으로 미래시상은 「상상(추측)서술」이라 명명하고 시간상의 미래거나 현재거나를 불문하고 상상 혹은 추측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똑같이 미래시형을 사용하여,

내일 밤에 달이 있겠소.

그러나 일기가 매우 춥겠다.

등의 미래계에 속하는 일을 상상할 수가 있는 동시에,

발소리가 아마 그 사람이겠소.

와 같은 현세계에 속하는 상상도 할 수가 있다.

최후로 또 하나 반과거, 즉 현재완료를 「확인확술」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그 진술되는 사항이 발언하는 순간 그 지각의식 내에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을 때 그것을 명료·확실하게 표시하는 어형이라고 한다. 이것도 박승빈씨가 그저 「동사 반과거로 표시함과 동일한 취지의 언어를 설시(說示)함에 그 현재형을 사용하여서 현상을 설시함으로써 족합」이라고만 하고 거시한 예문을 세강 박사의 각도에서 다시 고찰하여 볼 때, 우리는 그의 탁월한 견해에 다시 한 번 설복되지 않을 수 없다.

① 돈이 생겨 쓰오—돈이 있소.

② 손님이 왔소—손님이 있소.

③ 선생이 되었다—선생이다.

이 예들을 볼 때 우리는 반과거란 「확인확술」이라는 것을 수궁치 아니치 못하게 된다. 이 예문의 좌측과 우측은 결코 동일한 의미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상을 나는 세강 박사의 견해를 조선어에 적용하여 간단하나마 소개하였다. 조선어학의 전문 학도가 볼 때에 세강 박사의 견해가 완전히 그대로 조선어에 적용되지 못할 점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 내가 시험한 적용에도 건강부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학설의 절대성 여부는 막론하고라도, 언어를 내면적·심리적으로 고찰하는 이러한

방법, 다시 말하면 발언자의 견지에서 고찰하는 이런 방법은, 우리가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줄 안다.

이 글에서 박승빈씨의 저술에 언급한 점이 있으나, 이는 결코 씨를 반박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여 둔다.

《문장》, 1권 9호, 1939. 10. 1)